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을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을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요만한 거 하나도 착을 두지 말고 무심으로 하라

마음공부가 좋은 이유

문) 절에 다니다 보면 어떤 기도는 어디에 좋고 어떤 기도는 어디에 좋다고들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요즘 생각이 드는 것이, 단지 이 마음공부도 어떻게 보면 중생들이 희구하는 것에 대한 기복일 뿐이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스님, 그런데 이 마음공부가 어떤 부분이 좋은 것인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예전에 어떤 친구가 조그마한 껌을 놓고 선 기름을 얻어다가 팔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었어요. 가난한데다가 딸은 미쳤죠, 큰어머니는 간질병으로 그렇게 애를 쓰죠, 또 아버지는 다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죠. 세상에 그런 지망년은 없겠죠. 기름을 그 부인이 몇 개 팔아서 연명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하루는 이렇게 꿈을 꿔왔습니다. 꿈에서 책을 보여 주면서 하는 말이, "네가 이만큼을 지내서 이 고통을 다 받아야 하는데, 아무개 스님을 찾아가서 오천 원만 그분에게 갖다 드리고 살려 달라고만 한다면 이 책장이 그냥 넘어가느니라. 그러면 내가 살게 되느니라." 이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책장이 조금만 넘어가면 다터집니다.

그때 꿈에 나를 집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몇 십 리 되는 데를 찾아 올라온 겁니다. 찾아 올라와서 오천 원을 갖다 주면서 살려 달라고 하면서 꿈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소릴 듣고서 오천 원을 안 받으려 해야 안 받을 수가 있나? 장사 없죠. 그래서 그 오천 원을 손에 쥘 채 "그 스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요, "당신이 올 줄 알고 출타하시면서 돈 오천 원을 가져와 테니 받고 내려보내면 다 괜찮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레 놓고는 딱하니 그냥 오천 원을 받아 가지고는 풀선에 앉아 있던 대로 그냥 앉아 있었죠.

그리고는 갖단 말입니다. 그래서부터 간질병도 없어지고 미친 딸도 그대로 괜찮아서 시집 보내고 그 딸도 그냥 살고 다닌 거 버리고, 또 그 기름 파는 데 어떤 친구가 와서 큰 가게를 주면서 자기 집 기름을 그냥 갖다 줄 테니 거기를 팔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만 판 게 아니라 기름을 짜는 기계를 주어서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지금 부자가 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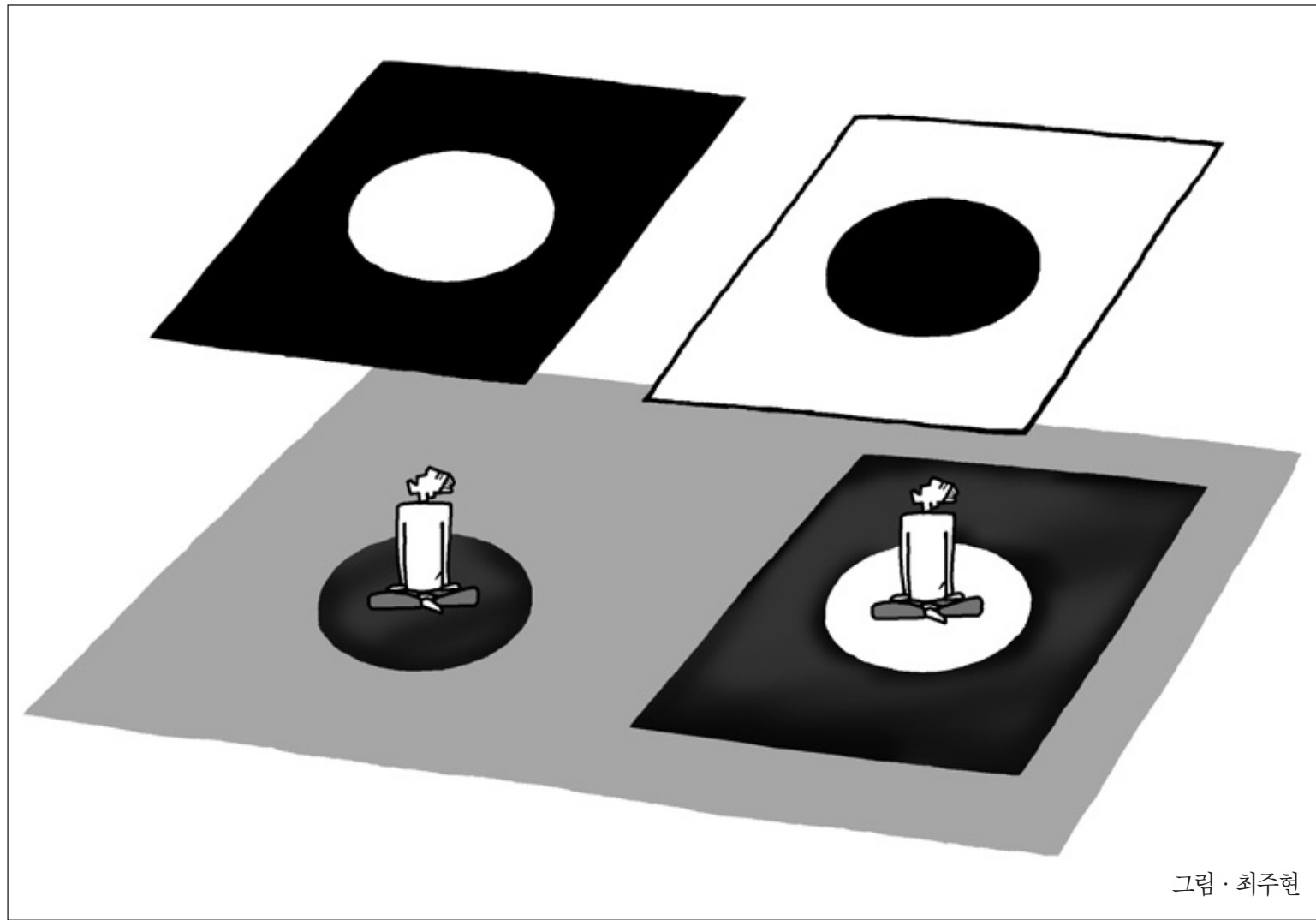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잘 산답니다.

주인공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나쁜 거를 다 제거 주며 지금 누가 여러분을 끌고 다닙니까. 여러분이 끌려다니는 그 자체는 바로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와 마찬가지로 그 차 운전수는, 바로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운전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에너지를 자꾸 그 차에다 넣어서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운전수를 믿지 않아요. 중간에 운전수가 기름도 넣어 주고 또 고장나면 고쳐도 주고 닦아도 주고 아, 이러는데 믿질 않는 겁니다. 그래도 믿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믿으십시오. 여러분도 그 공부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다 건지십시오.

우리가 진실하게 공부한다면 여러분 지식들의 뿌리를 도와주는 거고 뿌리를 심상하게 만

드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자면 위로는 묵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아래로는 햇빛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이 도리를 공부하신다면 세세생생에 꼬달리지 않는 바로 그러한 법신과 부처가 되는 거죠. 아니,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 부모의 은덕도 갚을 수 있고 세세생생에 꼬달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원한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공부만 잘하신다면 향 한 개비 안 꽃아 놔도, 물 한 그릇 안 놔도, 내가 먹는 밥에서도 위로는 내 부모와 더불어 일체제불과, 아래로는 일체 중생이 다 같이 한 그릇 가지고 먹고 한 그릇이 되남을 수 있는 그 광대무변한 법을 아마 터득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무조건 여러분이 있으

니 세상이 있는 것이기에 무조건 여러분은 여러분 운전수를 믿으십시오. 어떻습니까? 내가 틀리니까?

천당과 지옥이 진짜로 있는지요

문) 부처님의 근본경전을 읽어 봐도 지옥에 간다 천당에 간다라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지옥이다 천당이다 하고 설정을 해서 사람을 구속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스님, 천당과 지옥이 진짜로 있는지요?

답)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일체 만물만생 전부가 다 흠이든지 무정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지수화풍을 막론하고 더불어 모두가 평화스럽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게끔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지 못합니다.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유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들이 물질세계의 50%에만 전전긍긍하니 거기에까지 마음이 미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내가 산다느니 내가 했다는니 내가 말했다는니, 그리고 망한 거는 또 타의에 의해서 망했다는니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못살게 됐다는니, 이러한 문제 등이 모두 여러분의 마음에 사무치기 때문에 밝게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천당 지옥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이 마음이 진정코 무서운 도리라는 것을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일체 만물만생이 천차만별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로 낳는 거나 알로 낳는 거나, 화해서 낳는 거나 질척한 데서 낳는 거나 천차만별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정물도 식물도 천차만별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전력이 똑같듯이 인간의 불성의 씨는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마음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모습을 지어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박씨를 심었으면 박이 나오, 박 씨가 나고 박이 또 열리죠. 그러나 마음의 불씨라는 것은, 마음의 씨라는 것은 박씨도 아니요 사람씨도 아니요, 이것 씨도 아니요 저것 씨도 아닌 자체의 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먹는 대로 입력이 돼서 그것이 현실로 모습을 들고 나오고, 바로 현실로 모든 생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보다도, 벌레가 되느냐 짐승이 되느냐, 날아다니는 새가 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무서운 것은 둘째 치고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가 자식들을 낳았을 때 거기까지도 미치지 됩니다. 부모가 살인을 저질렀거나 사상이 그르다 해서 만약에 부모한테 어떤 관점이 내려졌다면 그 자식까지도 연관이 되듯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생

26면으로 계속

2011학년도 법륜범음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본 범음대학은 불교전통의식 범음·범패 상주권공 과정을 체계 있게 교육하는 전문교육 기관입니다. 한국불교의 얼이 담겨있는 불교전통의식 범음·범패 관심 있으신 분이나 사찰에서 행하시는 각종 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배우실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은 승·속·종단에 관계없이 등록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입학 바랍니다.

입학안내

- 모집학과 : 범음범패과정 (상주권공)
- 입학대상 : 승려, 전법사, 포교사, 재가불자 등 종단에 관계없이 가능함
- 교육기간 : 2년 과정 (방학 없이 특별휴강 있음)
- 접수처 : 법륜범음대학 교학처 (법륜사 중무소)
- 연락처 : ☎ 중무소 : 062)655-7444
회장 : 010-4116-5900
총무 : 010-7941-0017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206-5번지 법륜사 (금호지구 아파트내)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수강신청서 (본교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 접수기간 : 불기 2555년(2011) 2월 1일 (음력 12월 29일) 화요일 ~ 3월 3일 (음력 1월 29일) 목요일까지 (창강생/편입생 수시접수 가능. 단, 시험에 통과해야 함)
- 입학식 및 개강일시 : 2011년 3월 10일 (음력 2월 6일) 목요일 오후 14:00 법륜사 대강당
- 강주 : 상진스님 (前보우승가대학,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불교의식반 강주 / 현안정불교대학 법배과 강주)



법륜범음대학 학장 월인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법륜사

강의내용

학년/학기	1 학 기	2 학 기
1 학 년	<p>- 기초 과정 -</p> <p>기 초 : 목탁잡고치는법, 요령론드는법, 삼귀의례, 사중서원, 천수경, 도량식, 중송 (전통범음)</p> <p>예 불 : 항수해례, 사성례 (육성례)</p> <p>불 공 : 삼보통칭의식 축원</p> <p>시 식 : 상공영반, 화엄시식, 상주권공 : 초월향, 등계, 합장계, 고향계, 개계, 채수계, 복정계</p> <p>※ 막바라 (요잡바라 기본과정)</p>	<p>상주권공 : 사방찬, 도량계, 참회계, 현좌계</p> <p>작 법 : 천수바라, 착복 (나비춤), 오잡바라 등</p> <p>- 천도의식 본과정 -</p> <p>시련, 대령, 관음, 신중작법, 지장청(상단), 신중퇴공, 관음시식, 구병시식, 시다림</p>
2 학 년	<p>- 천도의식 본과정 -</p> <p>봉송, 회향, 공덕계</p> <p>※ 관음태정, 관음바라, 회의제바라, 도량계작법, 다계작법,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육간이(소리춤), 운심계(소리춤), 가지계(소리), 화정, 축원화정</p>	<p>- 시연회 준비 -</p> <p>(제례비, 사물타루는 과정)</p> <p>1. 실천행사에 대비한 유기적인 의식진행 (법주, 바라지, 목탁, 요령, 태정, 북)</p> <p>2. 작법고급과정 (사방유신, 귀경이, 향화계, 법고무, 율남 등 작법실습)</p> <p>3. 특강 : 재학생들의 요구 사항 및 점의의식, 생전예수생활일제 등에 관한 의식시 및 설명</p>

여러분! 지금 누가 여러분을 끌고 다닙니까?

☞ 25면에서 계속

활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런 문제 등이 현실에 결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두렵게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은 사람의 모습으로써 이렇게 살지만, 한순간에 꿈같이 내 몸이 사대(四大)로 흩어져서 제각기 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고 불로 돌아가는데, 원점으로 다 돌아가는데 여러분은 하나도 가져갈 게 없어요. 몸도 가져갈 수 없고 보물도 가져갈 수도 없고 재산도 가져갈 수가 없고 또는 부부와 자식도 가져갈 수가 없고, 모든 권속도 가져갈 수가 없고 권리도 아무것도, 친구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악업이든지 선업이든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림자처럼 따르는 것이 바로 업입니다. 그 업식으로 말미암아 모습을 사람으로 가지고 나오느냐, 짐승으로 가지고 나오느냐, 벌레로 가지고 나오느냐, 새로 가지고 나오느냐, 독사로 가지고 나오느냐, 개로 가지고 나오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은 사는 게 뭐, 살아나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이렇게 방치하는데, 여러분이 사람의 의식으로 생활을 하고 사시다가 만약에 새 새끼나 짐승이나 땅속의 벌레나 독사가 짝짓기 하는 데 자동적으로 들어간다면 어떠한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을 잘 보십시오. 넘마는 넘마전에 있고 금은 금방에 있습니다. 강룡은 강룡전에 있고 무쇠는 무쇠전에 있습니다. 사람들도 천차만별로 까리까리들 모두 모이는 겁니다.

그와 같이 자동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모습을 짓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의식으로 살다가 짐승 모습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아무리 울고 발버둥 이쳐도, 개로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면 "멍멍" 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로 나왔다면 새로 지저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하고 눈물을 흘려도, 간절하게 말을 해도 세상 사람은 들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답답한 거 자체가 지옥입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재나 쌀이나 곱게 해 놓고 뭐가 됐는가 발자취를, 발자국을 보는 유래가 있었죠. 구렁이가 됐으면 그 재를

가지런히 해 놓은 거기에 구렁이 표시가 나고 사람이 됐으면 사람 발자국 표시가 나고 이랬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지옥이 우리 눈앞에 그냥 널렸고 천당도 눈앞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일이 현실에 진실로써 그냥 막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지금 딱 차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겁니다. 금으로다가 반지를 만들었다면 반지가 아무리 찌그러졌어도 금방에 가서 다시 재생돼서 나오지만 무쇠나 놋마라면, 강룡이나 그런 철 종류라면 가서 재생이 돼도 철 종류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앞길에 세세생생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쁜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관련이 되고 자식에게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부부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문 이제 갓 결혼한 애들이 부부인데, 부부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부부의 마음은 그래요. 살아 보면 모두들 두 사람 다 남편은 아내를 탓을 하고 아내는 남편을 탓을 하거든요. 그런데 두 부부가 만날 때에도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세요. 금방에는 금이 모여 있고, 넘마전에는 넘마가 모여 있고, 강룡전에는 강룡이 모여 있어요. 시장에도 가 보세요. 배는 배끼리 사고는 사고끼리 놓여 있죠. 그런 거와 같이 그 인연에 따라서 다 부부가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가 이거는 '내가 있으니까 저 사람을 만났지,' 하고 내 탓으로 돌려야 화목하고 사랑할 수 있는데, 내 탓이 아니라 저 사람 탓이라고 하거든요. 모두 각자 그냥 부인은 남편 탓을 하고 남편은 부인 탓을 하나씩 이거는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사과끼리 만났다면 사과끼리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든 게 맞을 할 게 아니라 '야, 내가 사과기 때문에 사과를 만났구나. 그러니까 내 탓이지 저 사람의 탓이 아니로구나.' 하고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 준다면 외려 미안해서도 더 잘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화목과 사랑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명심하세요.

꼭 깨쳐야만 하는지

문 스님, 이 마음공부를 해 나간 지 10여년이 흘렀습니다만 그래도 가끔씩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내 앞에 딱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만 되지 굳이 어렵게 꼭 깨쳐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 말입니다.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내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깨친다 안 깨친다를 떠나서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 여자고 남자고 젊고 늙고 간에 불문에 부치고 자기 앓은 방식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중생이라고 말할 것인데 우리가 이 한국이라는 조막쟁이만한 나라에 태어났으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 가정을 보호하고, 자기 가정을 보호하는 사람이 사회도 보호

할 수도 없고 배꼽에 붙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너무도 광대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 고정되게 붙어 있지 않기에 부처라는 이름이 있지 만약에 공하지 않았다면 부처라는 이름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니 여러분이 어렵다,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떠나서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상태로 우리는 지금 그냥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 산도 없거니와 옛 사람도 없고 옛 물도 없다는 뜻이 바로 이런 데 속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중생이다. 부처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중생이고 저렇게 하면 부처인데 내가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렵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부처의 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잘못되고 잘된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거를 너무도 잘 알기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상식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벌써 태어났으면 나쁘고 좋은 걸 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의리를 하지만 그렇더

라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알 만큼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묵인하고 그냥 부처님의 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깨친다 안 깨친다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꾸 스스로 좌절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못 믿어요. 여러분은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중생이 생각하는 건데 이걸 안되지,' 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뿐만 아니라 큰 것도, 타인의 일이라도 말입니다. 공장을 처음 났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할 때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한생각을 탁 내 줄 때 그 공장은 그대로 유지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생각을 내 주는 것도 그렇고 한생각을 하는 것도 그렇고 한생각의 그 향기로 온 냄새가 온 우주를 다 덮고 우주를 싸고 아니 덮는 데 없이 닿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능력입니다. 마음은 여러 가지로 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바로 이것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몸뚱이도 한 사람 몸뚱이지만 한 사람의 몸뚱이라 해도 이름이 다 각각 있지 않습니까?

눈이다 코다 귀다 손이다 발이다 간이다 하는 이름이 여간 많지 않습니까? 이 많은 이름들이 한데 합쳐진 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는 노릇이 부처가 하는 노릇이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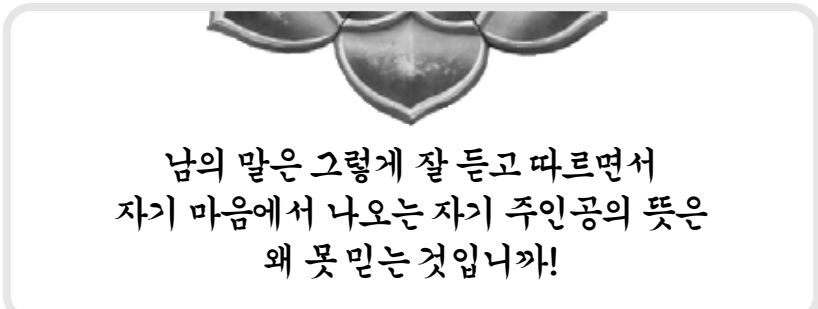
그렇게 백지장 하나 사이인데도 그게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힘이 든다 이겁니다. 마음의 주인공은 바로 가슴에서 느끼는 점입니다. 느끼는 점! 이 가슴에 와 닿아 가지고 느끼는 점입니다. 느껴서 그대로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법입니다. 그러니 보는 것도 아주 세밀하게 볼 수가 있는데도 그거를 여러분이 느끼면서도 못 믿는 것입니다. '야, 이걸 내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걸 모두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니까 이걸 안된다는데...' 이러거든요. 남의 말을 그렇게 잘 듣고 잘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주인공의 뜻은 왜 못 믿습니까? 자기 스스로 믿고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자재한다면 그대로 법신 아닙니까?

아끼던 개가 몸을 벗었습니다

문 안녕하세요. 저는 여중생인데, 제가 식구처럼 아끼던 개가 몸을 벗어서 너무나 속상해요. 다음 생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궁금합니다.

답 그것은 짐승도 그렇고 우리도 최초부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벌레로부터 이렇게 생겨나서 인간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 거와 같이 짐승이 됐으면 사람으로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됐어도 짐승으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꾸 변화가 오죠. 그러니까 그거 있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바뀌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토끼 그러면 토끼로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고 개로도 태어나고 개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돼지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소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태어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태어나고 권리로 주어지고 삶도 주어지고 생김도 주어지고, 모두 그렇게 주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걸로 태어나고 여기 가서 저걸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태어나진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없고, 하여튼 짐승 하나도 내 모습 아닌 게 없고 이렇게 되죠. 나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모두들 돌로 보지 말고 잘 생각해서 살아야 될 겁니다.



남의 말을 그렇게 잘 듣고 따르면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주인공의 뜻은 왜 못 믿는 것입니까?

할 줄 알고, 또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거니와 세계적으로도 우주적으로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내가 앓은 자리를, 내가 내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를 끌 수 있다는 얘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반면에 여러분이 '야, 부처님 법은 이렇게 어렵구나! 이걸 깨달아야 한다...' 아이구, 우린 깨닫지 못해서 중생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중생 부처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의 생각을 해도 그것은 집착이니 인(因)을 짓는 것이니라.' 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보시를 하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착을 둔다면 그것은 선인(善因)을 짓는 겁니다. 집착을 했으니까. 그래서 악에 집착을 해도 아니 되고 선에 집착을 해도 아니 되느니라. 일상생활에서 요만한 거 하나라도 착을 뒤서는 안 되느니라. 내 마음이 고정되게 돌아가고 공했으니 내가 하는 모든 일도 전부 공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착을 두지 말고 그냥 무심, 무심으로 해라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마음 내놔 봐라.' 한다면 어디 눈에 마음이 붙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귀에 마음이 붙어 있다고 하겠습니까? 코에 붙어 있다고

한국불교예술대학 학인모집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제9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범패 · 소리과정** : 기본 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 (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1년과정 - 매주 화요일)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 **작법 · 무용과정**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계작법, 도량계작법 (1년과정 - 매주 목요일)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용계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강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일 초 스님

- **개강일시** : 2011년 3월 15일 (화요일) 오후 3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 요일** : 화요일, 목요일 - 오후 3시 ~ 5시
- **접수기간** : 2011년 2월 ~ 2011년 3월 10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국불교예술대학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1-10호 인쇄빌딩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동소정사거리 부평6동 우체국 옆)
전 화 : 032)529-6708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본 대학 <http://www.bumpae.org> / 삼계종 <http://www.samgyeojong.org>